

## 뉴먼의 <교육 이념>은 기독교 교육에 어떤 과제를 남겼는가?

양동일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 요 약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은 교육을 통해 원만한 마음을 형성하여 인간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내재적 목적은 기독교 교육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라고 천명한 신약 성경의 구절로 정당화할 수 있다. 한국의 기독교 교육은 인간의 마음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있는가?

종교 교육이 교수자가 추상적인 이론이나 교리를 주입하여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형태라면 학습자들은 어떻게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삶의 실천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인간이 교육을 통해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에서 사고력, 분별력, 실천력을 획득해야 할 것이다.

존 헨리 뉴먼(John Henry Newman)은 옥스퍼드에서 회랍의 자유교육 영향을 받았고 개혁적인 프랑스 칼빈주의 기독교에서 영국 복음주의 기독교로 개종하고, 이어서 영국 국교회와 카톨릭으로 개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생 여정을 정당화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는 회랍의 자유교육과 신구교의 통합이라는 업적을 남겼다.

뉴먼이 자유교육과 종교교육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많은 이론적 작업은 현대 기독교 교육에도 적지 않은 함의가 있다. 이것은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이라는 신구교의 교리 변증에 더하여 인간 이성을 통한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 생각하는 기독교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자는 여기에 더하여 기독교 교육에서 토론 교육과 함께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한 실천적 지혜(pronesis)와 실천(proxis)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자유교육, 종교교육, 특별은총, 일반은총, 총체적 지식, 토론교육, 실천적 지혜, 실천

## 1. 서론

존 헨리 뉴먼(John Henry Newman)이 제시한 종교 교육철학은 ‘회랍철학과 기독교 교부 철학의 결합<sup>1)</sup>’이라는 업적을 남겼다. 신학자나 종교 철학자들은 회랍철학을 기반으로서 기독교 교리를 정당화했는데 한편으로는 플라톤의 이데아(Idea) 사상을 토대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료와 형상 이론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성 어거스틴(St. Augustine)은 플라톤(Plato)과 플로티누스(Plotinus)의 철학을 기반으로 육체와 영혼을 구별하여 특별은총을 강조하고, 성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는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기반으로 육체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영혼의 작용과 일반은총을 제시했다.

뉴먼은 자유교육과 종교교육의 통합을 시도한다는 관점에서 ‘토미스트(Thomist)’라는 비판을 받지만 어거스틴이 주장하는 ‘특별은총’관점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는 또한 대학에서 자유교육과 종교교육, 그리고 직업교육을 모두 중요시하는 ‘혼합주의(Syncretism)’경향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뉴먼이 독실한 칼빈주의 집안에서 태어나 옥스퍼드 대학에서 자유교육을 경험하고 영국 국교회로 개종했으며 후에 다시 카톨릭으로 개종하면서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과 변증을 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연구자는 이 논문에서 뉴먼이 대학교육에서 중요시 여기는 자유교육과 종교교육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알아보고 그의 독특한 경험이 어떻게 통합되었는지 그의 생애와 관련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뉴먼은 총체적 지식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 종교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종교교육이 어떻게 지식 상호간의 연결과 통합을 이루는지의 기저는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연구자는 종교교육의 진정한 지식 통합의 과제로서 토론 교육과 함께 실천적 지혜(pronesis)와 삶의 실천(proxis)’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분야의 선행 연구로서 ‘카톨릭 대학의 정체성 연구와 발전 가능성’을 다룬 논문과 ‘총체적 지식으로서의 자유교육의 필요성’을 다룬 논문이 있으며 뉴먼의 종교철학에서 ‘신앙의 합리성과 신의 존재 증명’을 다룬 논문이 있다.

이종진(2016)<sup>2)</sup>은 뉴먼의 <대학의 이념>에서 주요하게 다룬 주제들을 소개하면서 오늘날 까지 시의성이 있는 내용과 자유교육의 중요성, 통합으로서 신학의 역할, 카톨릭 인본주의에 입각한 교회의 의무를 주로 다루었다. 최준규(2016)<sup>3)</sup>는 뉴먼의 생애와 교육 사상을 약술하고

1) James Arthur and Guy Nicholls(2007), John Henry Newman, p90

2) 이종진(2016). 존 헨리 뉴먼의 『대학의 이념』에 비추어 본 한국 가톨릭대학교들의 발전 전망

대학 이념의 핵심 개념으로서 보편적 교육의 제시, 그리고 보편적 지식 형성을 위한 신학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유재봉(2010)<sup>4)</sup>은 뉴먼의 <The Idea of a University, 대학의 이념>을 통해 총체적 지식 개념으로서의 자유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현대적 자유교육론을 정립한 허스트(P. H. Hirst)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허스트가 기술한 지식 개념에 대한 약정적 정의의 한계와 총체적 지식의 실질적 측면과 형이상학적 기반의 간과를 지적하며 대안으로서 뉴먼이 주장하는 ‘신학’의 토대를 둔 ‘온전한’의미의 총체적 지식의 회복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이태하(2011)<sup>5)</sup>는 뉴먼의 <An Essay in Aid of a Grammar of Accent, 동의의 문법을 조력으로 한 수필>을 통해 ‘신앙이라는 것이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라며 ‘신앙은 논리적 추론을 통한 입증의 대상이 아니라 기술과 설명을 통한 옹호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양심의 현상학이 종교적 확신과 삶의 실천까지 이어지는 합리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연구가 현대 대학교육에서 자유교육과 종교교육의 유의미성을 준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종교교육이 총체적 지식을 통합하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양심으로부터 출발한 종교적 확신이 ‘막연히’ 삶의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가정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데 여전히 논란이 있어 보인다. 연구자는 따라서 종교교육이 총체적 지식을 통합하기 위한 과제로서 사고력 함양을 위한 토론 교육과 ‘실천적 지혜와 삶의 실천’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뉴먼의 생애, 신구교와 자유교육의 결합

19세기와 함께 태어나 19세기 말에 생을 마감한 뉴먼은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만큼 사상과 철학도 큰 변화를 겪어야 했다. 뉴먼 생애의 큰 변곡점들은 그의 사상과 철학을 변증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함을 남겨주었다. 뉴먼은 자신의 삶에서 겪은 모든 경험과 생각들이 서로 연결되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총체적이고 원만한 지식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뉴먼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은행원이었으며 어머니는 프랑스 칼빈주의<sup>6)</sup> 개혁과 신앙을 갖고 있었다. 7세 때 명문 일링 스쿨(Great Ealing School)에 입학했는데 당시 인문고전

3) 최준규(2016). 존 헨리 뉴먼의 『대학의 이념』에 나타난 가톨릭 교육의 정체성 구현 방안 연구

4) 유재봉·정철민(2010). 대학 이념으로서의 자유교육: 뉴먼(Newman)의 ‘총체적 지식’ 개념을 중심으로

5) 이태하(2011). 뉴먼의 신 존재 증명과 신앙의 합리성

6) 프랑스 칼빈주의는 소위 ‘위그노 신학’이라 불리는 개혁과 신학으로 카톨릭의 권위에 강하게 반대한다.

교사였던 월터 메이어스(Walter Mayers)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는 14세 때 토마스 페인, 흄 등의 회의적인 작품들을 읽기도 했다.

그는 15세 때 복음주의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는 <아폴로기아>에서 “내가 손과 발을 가진 것보다 더 확신이 있었다.”라고 고백했다. 고전 교사인 메이어스는 뉴먼에게 영국 복음주의적 칼빈주의<sup>7)</sup> 전통에 관한 책을 빌려주었고 뉴먼은 그 책을 탐독하고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는 복음주의 기독교의 ‘확실한 신념’에 매료되고 ‘오직 신의 은총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에 감명을 받는다. 그는 15세 때의 복음주의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그의 영혼의 구원’으로 묘사했으며 그는 점차 초기 칼빈주의로부터 벗어났다.

이후 그는 옥스포드대학의 트리니티 칼리지(Trinity College)에 입학하여 자유교육에 입문했다. 그가 대학에서의 자유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옥스포드에서 배운 자유교육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영국 국교회<sup>8)</sup>로 개종하여 24세에 성공회의 부제가 되었고 이듬해인 25세 때에는 성공회의 사제가 되었다. 그는 광교회파(Broad Church)에 반대하여 고교회파(High Church) 운동<sup>9)</sup>을 이끌며 교회의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며 성공회와 카톨릭을 연결하려고 애썼다.

그는 1845년 다시 카톨릭으로 개종하고 1847년 사제 서품을 받았으며 1849년에는 교황 레오 13세에 의해 추기경으로 서임되고 1890년에 생을 마감한다. 그가 남긴 수많은 저작물은 오늘날까지 대학교육이나 종교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는 생애 초기 프랑스 칼뱅주의 영향으로 로마 카톨릭의 권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생의 후반에는 카톨릭의 추기경이 되는 역설적인 인물이다. 15세 때에 복음주의 기독교에 입문하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계시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얻는가 하면 옥스포드대학에서는 다양한 자유교육을 경험하며 지식의 폭이 넓어졌다. 이후 영국 국교회로 개종하고 25세에 성공회의 사제가 되어 교회의 권위를 강조하는 옥스포드 운동을 주도했으나 45세에는 다시 카톨릭으로 개종하고 추기경에 서임되기까지 한다.

그는 세 번에 걸쳐 종교적 정체성을 바꾸는 것을 정당화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가 전 생애에 걸쳐 40여 권의 저작물을 낸 것은 그의 삶에 대한 성찰과 변증의 결과물이었다.

---

7) 영국 칼빈주의는 프랑스 칼빈주의와 달리 복음주의 기독교 성향을 갖는다.

8) 영국 국교회는 ‘성공회’라고 불리기도 한다.

9) 고교회파 운동은 일명 ‘옥스포드 운동(Oxford Movement)’이라고 불린다.

그는 이 과정에서 대학의 자유교육과 신학, 일반은총과 특별은총, 교양교육과 직업교육을 모두 부인할 수 없었으며 모든 지식들을 통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 3. 전통적 자유교육의 필요성과 한계

뉴먼은 먼저 희랍의 자유교육 전통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대학교육에서 자유교육의 필요성을 희랍의 교육을 통해 정당화했다. 뉴먼이 공유하고 있던 희랍의 자유교육 관점을 살펴보고 그것의 한계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뉴먼은 희랍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철학을 수용한다. 플라톤의 ‘국가’는 인간의 ‘디카이오쉬네(dikaiosynē, 올바름)’을 국가 개념으로 확대한 것이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욕망(desire), 기개(spirit), 이성(reason)’으로 나누었으며 세 가지가 이상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올바름’으로 보았다. 그는 특별히 이성이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기개와 욕망이 보조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엘리트 교육을 수용하면서도 다수 대중을 위한 도덕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것은 이후 아동 교육 과정의 시초가 되기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교육을 ‘아레테(Aretē)’ 즉 도덕적 탁월함을 성취하는 과정으로서 세 단계를 제시하는데 첫째 육체의 훈련, 둘째 성격의 훈련, 셋째 지성의 훈련으로 나뉜다. 어린 시절부터 육체의 욕망을 자제하며 습관을 잘 훈련하여 좋은 성격을 함양하고 지성을 갖추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두 철학자의 공통점은 첫째 교육에서 이성의 작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과 교육은 이런 이성의 활동으로 ‘자제력’을 얻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둘째 두 철학자 모두 어린 시절부터 교육과 훈련을 통해 좋은 습관을 길러 좋은 성격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뉴먼은 희랍철학에서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뉴먼은 ‘주형으로서의 자유교육의 원리’를 중요시했는데 이는 어린 시절의 성격과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자유 교과를 가르쳐야 한다는 점이다.

뉴먼은 또한 <The Idea of a University, 대학의 이념>에서 대학에서의 자유교과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대학 교육의 목적은 희랍의 자유교육의 목적과 동일하며 그것은 ‘이성 혹은 사고능력’을 계발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총체적 지식을 통해 총체적 마음을 형성하여 인간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뉴먼은 학생이 자유교육을 통해 좁은 지식이 아닌 폭넓은 지식을 함양해야 한다고 한다.

희랍의 자유교육이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도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자유교육은 희랍의 전통적 자유교과인 삼학사과를 비롯하여 현대에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순수예술 등을 망라한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지식들을 배우는 것이 곧 총체적 지식을 배우는 것과 같고 결과적으로 총체적인 마음을 형성할 수 있을까?

뉴먼은 이 같은 논리에 제동을 건다. 그에 따르면 총체적 지식은 그 자체로 분절된 지식으로 남을 수 있고 서로 연결되거나 통합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대학의 교양교육은 단지 교양이나 ‘취향’을 가진 ‘신사’를 양성할 수 있지만 전인격적 교육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 뉴먼은 지식이 연결되고 통합되기 위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4. 기독교 교부철학의 역할과 한계

뉴먼은 희랍의 자유교육과 함께 기독교 교부 철학을 수용하는데 이것은 희랍 자유교육의 한계를 비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다시 말해 뉴먼의 교육철학은 희랍의 자유교육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기독교 교부 철학을 완성하는 것이다. 뉴먼은 자유교육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 희랍의 자유교육 자체는 결핍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뉴먼은 기독교 교부 철학을 수용하는데 교부철학의 핵심은 인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이방 전도가 시작된 초대교회 기독교사상으로 사도 바울이 주로 주장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도덕적 완성의 역할 모델이다.

그리스도인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원죄로부터 해방되며 도덕적 완성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본받으라는 강제나 의무가 아니라 창조주와 그 아들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의 양자가 되어 도덕적으로 완성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이 뉴먼의 교육이념은 희랍의 자유교육 위에 기독교 교부 철학을 결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따라서 뉴먼에 따르면 도덕교육은 어린 시절부터 이성의 다분한 훈련으로 함양해야 하는 것이며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창조주의 계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신앙과 도덕의 완성을 이루어야 한다.

뉴먼은 단지 이성과 지적 훈련으로만 도달할 수 없는 ‘특별은총’의 개념을 인정하면서도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양심’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인간 본성에 내재된 ‘하나님의 음성’이 보이는 현상 너머의 보이지 않는 실재를 파악한다. 이것은 한편으로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양심의 법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일반은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뉴먼은 아퀴나스를 대표로 하는 토미즘의 계승자라고 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은 감각과 경험을 통해 실재를 파악한다. 이러한 감각과 경험을 토대로 인간은 세상을 추상적으로 파악하고 보이지 않는 실재에 도달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각세계를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자연과학, 수학, 논리학, 형이상학에까지 이른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인간 육체의 감각과 경험은 실재를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점을 수용했다. 인간 자체에 내재된 양심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이성의 작용을 통한 추론이나 지적 훈련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에 내재된 ‘하나님의 음성’이 보이는 현상 너머의 보이지 않는 실재를 파악한다.

이태하<sup>10)</sup>는 뉴먼의 <An Essay in Aid of a Grammar of Accent, 동의의 문법을 조력으로써 한 수필>을 통해 신앙은 논증이나 추론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나 설명으로 옹호되는 것이라고 한다. 뉴먼은 여기서 ‘양심의 현상학’을 통해 신의 존재를 옹호하고 신앙의 합리성을 제시하고 있다.

뉴먼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표현들이 문법이 되듯이 동의를 통해 신앙을 옹호하려고 한다. 동의란 무언가를 파악하는 것으로 개념적 파악과 실제적 파악으로 나뉘는데 뉴먼은 실제적 파악을 중요시한다. 실제적 파악은 소위 ‘양심의 현상학’으로서 인간은 양심을 통해 확실한 신앙을 갖게 되고 실천의 합리성을 얻는다고 한다.

## 5. 뉴먼의 교육이념 비판과 기독교 교육의 과제

뉴먼은 그의 생애의 변곡점을 이룬 시기마다 자신의 종교적 철학적 정체성을 정당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희랍의 자유교육과 교부철학을 결합했으며, 교부철학의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을 연결해야 했다. 결국 그는 교육이란 총체적 지식을 통해 총체적 마음을 형성하여 인간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데 동의하여 희랍의 자유교육을 받아들였다.

뉴먼은 더 나아가 지식들을 내면적으로 연결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종교교육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기독교 교부 철학을 정당화한다. 그 과정에서 뉴먼은 근본적으로 어거스틴이 강조하는 특별은총의 개념을 중요시 하면서도 양심에 의한 신앙의 확신을 갖는 일반은총의 개념도 간과

---

10) 이태하(2011). 뉴먼의 신 존재 증명과 신앙의 합리성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가 제시한 신의 존재 증명 과정에서 단순히 양심이 신앙의 확신을 갖게 하고 실천의 합리성을 담보하게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

물론 이런 양심의 현상학은 신이 애초부터 존재한다는 믿음 하에 이루어지는 설명과 기술로서의 옹호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수궁이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신의 존재를 믿는 성직자도 얼마든지 양심이 무디어질 수 있으며 양심을 왜곡시켜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자신만의 율법을 만들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연구자는 헤겔의 정신 현상학, 뉴먼의 양심 현상학에 이어 ‘신앙 현상학’을 제시하고자 한다. 김보경은<sup>11)</sup> “실천이 결여된 성경교육은 삶에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못하여 영성에 기초한 인격형성과 성화를 돕지 못한다.”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삶의 실천 없는 실천적 지식은 종교교육에서 무의미하다. 따라서 실천지식 현상학은 실천적 지식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신앙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과정이다.

연구자는 ‘신앙 현상학’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위 ‘십계명 신학’을 주장하고자 한다. 십계명 신학이란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인간을 사랑하는 신학으로 뉴먼과 마찬가지로 일반은 총과 특별은총이 통합된 신앙이다. 십계명 신학에는 ‘올라가는 길’과 ‘내려오는 길’이 있다. 우선 시작점은 5계명으로 자연인으로서 인간은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한다.

십계명의 제5계명인 부모공경을 시작으로 제1계명까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다. 예배자로서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자세는 더 나아가 형상 이면에 감추어진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한다. 물론 여기에서 인간의 이성과 의지와는 별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와 특별은총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세계에서 하나님 닮은 삶을 실천해야 한다. ‘내려오는 길’에는 물질의 세계에서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 6계명의 살인 금지규정에서 10계명의 탐심 금지는 인간이 어떻게 물질의 세계에서 살아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올라가는 길’의 끝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내려가는 길’의 끝에는 물질에 대한 인간의 자세가 있다.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피조물인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반대로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

11) 김보경(2019). 하브루타를 적용한 실천적 지식 학습 모형 개발



결과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양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써 통합을 이룬다.

## 6. 요약 및 결론

14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 서유럽에 등장한 르네상스 운동은 16세기 이후 로마 카톨릭에 반대하는 종교개혁의 발화점이 되었다. 회랍의 자유교육을 이상으로 여기는 인문주의는 종교개혁의 이상과 양립할 수 있을까? 뉴먼은 19세기 초 회랍의 자유교육의 이념과 기독교 교부 철학을 결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뉴먼의 교육이념이 통합적인 경향을 갖는 이유는 옥스퍼드에서 자유교육을 경험하고 세 번의 개종을 통해 종교적 정체성이 크게 바뀐 것에 기인한다.

뉴먼은 회랍의 자유교육의 목적에 동의하는 한편 여기에 더하여 기독교 교부 철학을 통해 총체적 지식이 총체적 마음을 형성하여 인간의 마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먼에게 종교교육은 자유교육의 시작이며 완성이었다. 왜냐하면 종교적 지식이 모든 지식의 내면에 존재하며 다른 지식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는 ‘양심 현상학’을 통해 신앙을 기술하고 설명함으로써 종교적 진리를 옹호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이런 노력은 어떻게 종교적 지식이 다른 지식들을 연결하고 통합하는지 논증이 충분하지 않다.

뉴먼이 지식의 통합으로서 종교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교육의 통합 기저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종교교육의 진정한 지식 통합의 과제로서 토론 교육과 함께 ‘실천적 지식과 삶의 실천’을 강조하고자 한다. 현대의 종교교육이 다분히 추상적이며 이론적인 교리를 주입하는 것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추상화된 교리로써 지식을 통합하기에 부족하다고 본다.

따라서 연구자는 완전한 종교교육이 되기 위해 실천적 지식과 그 지식을 삶에 실천함으로써 총체적 마음을 형성하는 ‘신앙 현상학’을 제시했다. 실천 현상학은 소위 십계명 신학으로서 신앙과 삶이 유리되지 않고 삶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따라서 현대 기독교 교육의 과제는 회랍의 자유교육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성을 개발하는 교양교육과 사고력을 개발하는 토론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삶 가운데 ‘이웃사랑’이라는 종교적 실천을 성취해야 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되고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보경(2019). 하브루타를 적용한 실천적 지식 학습 모형 개발, 기독교학문연구회, 신앙과 학문. Vol. 24 No. 3, pg. 163, 35 p.
- 유재봉·정철민(2010). 대학 이념으로서의 자유교육: 뉴먼(Newman)의 ‘총체적 지식’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철학. Vol. 49, pg. 115, 18 p.
- 이종진(2016). 존 헨리 뉴먼의 『대학의 이념』에 비추어 본 한국 가톨릭대학교들의 발전 전망, 한국가톨릭학회, 가톨릭철학, Vol. 26, p. 57-84.
- 이태하(2011). 뉴먼의 신 존재 증명과 신앙의 합리성, 대한철학회, 철학연구, 279-304.
- 최준규(2016). 존 헨리 뉴먼의 『대학의 이념』에 나타난 가톨릭 교육의 정체성 구현 방안 연구,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Vol. 51 pg. 215, 20 p.
- James Arthur and Guy Nicholls(2007), John Henry Newman, London: Bloomsbury.